항만 크레인 고장 미리 잡는다… 부산항, AI 기술 수출 시동

싱가포르 'TOC ASIA 2026' 참가
와이어로프 상시진단 기술 선봬
위험도·잔존수명까지 예측 가능



지난 10~1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TOC ASIA 2026' /BPA

부산항만공사(BPA)가 첨단기술을 해외에 선보이며 시장 개척에 나섰다. 항만 크레인의 핵심 부품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특히 융합형 인공지능(AI) 모델을 적용해 물류의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는 지난 10~1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TOC ASIA 2026'에 참가해 '항만 크레인 와이어로프 상시진단 기술'을 알렸다. 부산항만공사와 엔키아가 2023~2025년 기간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형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항만 크레인 와이어로프 상시진단 기술'이다.

와이어로프는 크레인의 핵심 부품이다. 점검 시 하역작업을 중단하고 정비사가 직접 손과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내부 손상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사의 기술은 와이어로프에 설치한 자기센서를 통해 고밀도 자기장 신호를 상시 측정한다.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잡아낸다는 점에서 기존 유인점검 방식과 차별화된다. 또 하중·속도·운전시간·정비이력 등 크레인 운영데이터를 함께 분석하는 융합형 AI 모델을 적용했다. 위험도 판단과 이상 추세 예측은 물론, 와이어로프의 잔존수명까지도 추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상 징후를 90% 이상 식별하는 게 목표다. 앞서 신항 3부두(HJNC) 내 안벽 크레인에서 현장 실증을 진행했고, 목표성능 검증을 비롯해 극한 환경에서의 운용 안정성도 확인했다고 공사 측은 밝혔다.

와이어로프 진단 결과는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과 자동 보고서로 제공돼 교체 시기와 정비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사고 예방과 함께 불필요한 조기 교체를 최소화해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공사는 올해 6월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에 지원해 최종 선정됐다. 이후 신항 3부두(HJNC) 현장 실증 성과를 포함, 신항 1부두(PNIT)·4부두(HPNT)·7부두(DGT)와 북항 신선대부두(BPT) 등 5개 터미널의 안벽 크레인 10대로 해당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 행사 둘째 날인 11일에는 '1876 BUSAN'의 입주기업인 더워터솔루션과 함께 'TECH TOC 특별세션'에서 '항만시설물 관리용 수중 AI 로봇과 부산항의 안전 및 예지보전 기술'을 소개했다. 1876 BUSAN은 공사가 해운·항만·물류 분야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운영하는 지원 시설로 총 14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언더워터솔루션은 싱가포르 Pier71이 주관하는 스타트업대상 국제경진대회인 '2026 스마트포트 챌린지(SPC)'에서 혁신기술 기업으로 선정됐다. 현재 본선에 진출해 최종 심사를 받고 있다. Pier71은 싱가포르 해사항만청(MPA)과 싱가포르국립대학교(NUS)가 공동으로 설립한 해양·항만 초기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기관이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부산항 현장에서 개발된 우수한 기술들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디딤돌이 되고자 기업들과 함께 행사에 참가했다"며 "앞으로도 부산항의 혁신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1876 BUSAN 입주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aT, 베트남 박람회서 127억 수출상담 성과

시식·체험 통해 K-푸드 우수성 알려
유망품목 발굴, 기업 판로 확대 지원


'2026 하노이 국제식품박람회' 행사장 내 한국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이달 상순 열린 베트남 식품박람회에서 원화 127억 원 상당의 수출상담 성과를 이끌어냈다.

aT는 이달 4~7일(현지시간) 열린 '2026 하노이 국제식품박람회(V&B)' 행사장에 국내 업체들과 함께 통합한국관을 운영했다. 그 결과 956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과 37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 체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V&B는 베트남 산업무역부 주도로 하노이와 호찌민에서 연 2회 개최되는 현지의 대표 국제식품박람회다. 올해 행사에는 전 세계 10개국에서 350여 개 식품기업이 참가했으며, 식품 바이어와 관람객 1만 7000여 명이 찾았다.

aT는 과자·음료·인삼류 등 주요 수출품목을 진열했다. 또 신선과일과 건강식품, 간편식 등 수출 유망품목도 소개했다. 샤인머스캣을 비롯한 신품종 포도와 배, 단감 등 한국산 신선과일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알리고, '넥스트 K-푸드 홍보' 등 다양한 시식·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지 바이어와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올해 4월 검역협상 타결로 베트남 수출길이 열린 한국산 열처리 가금육 제품의 시식·홍보 행사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신규 수출품목에 대한 현지 인지도를 높이고 향후 수요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현지 식품 바이어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한국 식품의 우수한 품질과 다양한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베트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이 인상적이었다"며 "앞으로도 현지 소비자의 수요와 선호도를 고려해 한국산 농식품 수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T의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베트남은 한류와 K-푸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우리 농식품의 수출 확대 가능성이 큰 핵심 시장"이라며 "앞으로도 현지 소비 트렌드에 맞는 유망품목을 적극 발굴하고, 수출기업들이 신규 유통망을 확보하고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한국 농림축산식품의 4위 수출시장이다.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전략시장이기도 하다. 올해 9월 말 기준 대 베트남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3억7144만 달러를 기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노동자들의 예술 향연… 문화예술제 성료

근로복지공단, 수상작 공개
서예작품 '마음의 꽃', 대통령상

근로복지공단이 12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제47회 노동자문화예술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예술제는 노동자들이 직접 창작한 작품과 공연을 선보이는 자리다. 올해는 문학과 미술, 가요, 댄스 등 4개 부문에 총 5532명이 참가했다. 최고상인 대통령상의 영예는 이나래 씨의 서예작품 '마음의 꽃'에 돌아갔다.

심사위원단은 "절제된 터치와 여백의 미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짜임새 있는 배치와 균형으로 시선을 사로잡아 대통령상을 수상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며 호평했다.

문학부문 대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심야성 씨의 '그리움, 추억의 사진첩을 남기며'가 수상했다. 가요 부문에서는 뮤지컬 위키드의 대표곡 'Defying Gravity'를 부른 김도경 씨가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이들 수상작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올해 처음 시범 운영한 댄스 종목은 내년부터 정규 종목으로 전환된다. 직장 동료들이 함께 춤을 연습하고 무대에 오르는 과정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청년 노동자들의 관심 또한 높았다고 공사는 밝혔다.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노동자 문화예술제가 평소에 갈고닦은 재능을 선보이고,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더 많은 노동자가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기고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축산 현장 혁신 이끌 AI 기술 찾는다

축평원, AI 경진대회 17일 결선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스마트축산 인공지능(AI)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축평원이 주관하며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미래 축산기술을 엿보는 행사로, 이달 17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결선이 예정되어 있다.

축평원은 대회 관련해, 축산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용화 기술 우수사례와 알고리즘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 주제는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축산현장 문제 해결'이다. 참가 대상은 상용화, 알고리즘 등 2개 부문으로 나뉜다.

지난 8월까지 참가자를 모집했고, 서면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 7개 팀(상용화 3곳, 알고리즘 4곳)을 선정했다. 17일 현장 발표에 대한 온·오프라인 투표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축평원은 우수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창업 활성화 등 후속 지원을 강화했다. 앞서 알고리즘 부문 '지정과제'의 1차 선정팀(대학생)에 관련 스마트축산 기업과의 매칭을 통한 멘토링 기회를 제공했다. 아이디어가 현장에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지원한 것. 창업 전문가가 함께하는 온오프라인 컨설팅도 지원했다. 최종 수상팀에는 최대 500만 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한다.

상용화 부문 수상팀에는 상금과 함께 '2028년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 참여 혜택을 부여한다. 또 축평원 스마트축산 장비 솔루션 실증사업 참여 기회와 함께 상표권 또는 SW저작권 등록 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법인세 호황에 나라살림 적자 70조 감소

기획예산처, 9월 누계 8년 만에 최소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감소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70조원 넘게 줄며 역대 최대 개선 폭을 기록했다. 9월 기준 누계 적자 규모가 32조원으로 8년 만에 가장 작았다. 법인세수 급증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획예산처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2026년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605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24조6000억원 증가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385조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95조4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은 중앙정부가 거두는 세금이다.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으로 구성된다.

법인세가 127조8000억원으로 51조9000억원 늘었다. 반도체 호황에 기업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다. 9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연간 예산액인 101조3000억원보다 26조5000억원 많았다. 예산 대비 진도율이 126.2%를 기록했다. 9월 한 달 법인세 수입도 3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조6000억원 늘었다.

기획처 관계자는 "법인세 분납으로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도 법인세 납부 실적이 좋은 데 기인해 총수입이 많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소득세는 110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조7000억원 늘었다. 성과상여금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과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7조4000억 원 늘어난 6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등의 영향으로 7조5000억 원 증가한 9조9000억 원 걷혔다.

/세종=김연세 기자